

한경직 신학의 이해*

최 태 연**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
3. 경전체험의 신학
4. 장로교 복음주의 신학
5. 교회의 신학
 - 1) 복음전도와 교회부흥의 신학
 - 2) 에큐메니칼 신학
6. 사회신학
 - 1) 사회봉사의 신학
 - 2) 정치신학
7. 맺는 말 : 겸손과 사랑의 삶과 신학

1. 시작하는 말

평양 숭실대학의 졸업생이며 숭실을 서울에 다시 재건하고 초대학장으로로서 이 대학의 초석을 놓았던 한경직 목사는 한국의 목회자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목회자, 성공적인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의 목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해 준 그의 신학사상은 아직 체계

* 이 논문은 1998년 12월 15일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주최 『개교기념 특별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한경직 신학과 한국교회”를 수정한 글이다

** 본교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

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¹⁾ 이 글에서 필자는 한경직 목사의 신학과 그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준 영향을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이 작업을 위해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활동을 기술한 전기들과 영락교회사, 그리고 한경직 목사의 설교집의 도움을 받았다. 이 글은 한경직 목사의 신학을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치리라고 생각된다. 목회자로서 한경직 목사의 신학은 그의 설교에 가장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글은 한경직 목사의 신학을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섯 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 사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각인한 사상은 민족주의였다. 한 목사가 태어나고 자라던 시기는 한국이 국권을 잃고 일본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때였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인의 가장 큰 소원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주국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아들로서 한 목사의 사상 역시 민족의 자주권 회복의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1902년 평안남도 평원군 공동면 간리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자작농 한도풍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마포삼열(S. A. Moffett) 선교사의 전도에 의해 1895년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한씨 문중의 일원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라났다. 그가 8살 되던 해인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방 사건에서 시작하여 1941년 첫 목회지에서 강제로 사임하기까지 그는 일제의 폭압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목회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한경직 목사의 민족주의는 그가 받은 교육을 통해 일생의 신념으로 발전했다. 그의 교육은 진광소학교,

1) 숭실대학교 한경직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개교기념식을 즈음하여 <한경직목사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한 목사의 신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제1회(1997 10) 이종성, “한경직 목사가 한국교회와 신학에 미친 영향”
오기형, “한경직 목사가 한국교육에 미친 영향”
이윤구, “한경직 목사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제2회(1998 10) 한중식, “미국 장로교의 한국선교역사에 나타난 한경직 목사”
정진경, “한경직 목사와 선교”
제3회(1999 10) 김영한, “한경직 목사의 영성”
류순하, “한경직 목사의 목회관”
김영재, “한국교회사에 있어서의 한경직 목사의 위치”

오산학교, 숭실대학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는 철저한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하나됨을 삶 속에서 체현했다.

그가 받은 최초의 교육은 간리마을 동구밖에 방위량(W. N. Blair)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진광소학교에서였다.²⁾ 여기서 그는 도산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출신의 홍기두 선생으로부터 민족 의식과 애국정신을 배웠다. 이 학교를 월반하여 졸업한 후, 그의 육촌 형 한병직 목사의 강한 권고로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진학했다. 오산중학교는 사업가이며 기독교인인 남강 이승훈에 의해 설립되었고 철저한 민족주의 기독교인인 고당 조만식이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였다. 여기서 학생 한경직은 두 분의 정신적 감화와 엄격한 학업훈련을 통해 양육되었다. 그는 일생의 스승으로 모신 두 분의 감화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남강이·필자 주] 한 60이나 되셨을 겁니다. ... 어느날 저녁에 졸업반 학생을 한 너댓명 불렀어요. 가니깐 선생이 자리에 누웠어요. 우리가 가니깐 겨우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105인 사건으로] 끌려가서 일본사람에게 너무 매를 맞아서 언제나 일년이 되면 그 맞은 자리가 아프다’ 그런가 봐요 ... 그때 삼일운동 일어나기 전해인데 그 선생님의 말씀 있지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일본사람들이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장하니깐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앓아. 그렇게 되니까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한다’고 탄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 ‘다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던지 나 이승훈은 조선사람으로 살다가 조선사람으로 죽는다.’... 그 때 오산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시간이 있는데 채플시간이면 남강선생이랑 고당선생이 보여주었던 말이야요. 그 때 남강이 나이를 잡수셨어도 말씀하실 때는 거저 불을 뿜어요. 그 정신이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남강 선생은 내가 잊을 수가 없고.”³⁾

또한 고당 조만식의 감화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고림 [고당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어요. 일본 명치대 재학중에는 제일 한국기독교회를 설립하는데 한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사실 영수가 되었어요. 당시는 구한국의 국운이

2) “그저 감사한 것은 제가 세상에 나올 무렵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섰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을 뿐더러, 교회에서 경영하는 자그마한 진광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진광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과목들과 같이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때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 그 분이 홍기두라는 선생님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는 평양 대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교가 폐지될 때까지 다니던 이예요.”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6쪽;

한중식, 『사랑과 섬김의 성자 한경직』, 숭실대 출판부, 1998, 15쪽 참조)

3) 김병희, 같은 책, 13-14쪽

날로 기울어지는 때로 그는 청년 애국자로서 또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민족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와서도 양복 다 벗어버리고 한복입고 '난 한국사람으로 살겠다' 그 땐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니깐 남강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는 뛰어가서서 '자네는 우리학교로 와야 돼!' 그래서 고당선생을 오산 학교로 모셔왔지요. [고당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보여주심으로 실천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때 오산은 사관학교 비슷해요. 철저한 기독교적 민족교육장이었지요 근처에 사는 학생 말고는 전부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침 6시에 기상종이 울리면 선생과 학생은 일제히 일어나 운동장에 나가서 체조를 하였고 또 뒷산을 구보로 뛰어 한바퀴 돌아오곤 하였는데 고당선생도 꼭 같이 행동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방청소와 정돈을 하였고 조반 후에는 곧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매일 먼저 기도회가 있었지요 이 기도회는 언제나 교장 자신이 주재하였으며 또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 어른은 교장인 동시에 기숙사 사감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목도 겸한 셈이었으니까 그 때 그분은 가족은 평양에 두고 자기는 기숙사에 살면서 기거 일체를 학생과 같이 하셨습니다. 조만식은 그러한 교육잡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고당 선생처럼 학생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실지로 모범을 보여주며 그 전 생애를 희생한 교육가는 오직 고당 한 분이라고 기억되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분을 존경하게 되요"4)

오산학교의 남강과 고당의 민족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육적 모범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나이의 한경직 목사의 인격형성과 민족에 대한 사명감, 역사의식을 형성시켜 주었다.5) 남강과 고당의 기독교 신앙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한경직 목사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양자가 하나로 융해된 형태로 한 목사의 삶과 모든 목회활동에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민족과 기독교 신앙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 신앙의 길은 민족사랑의 길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1945년 공산당의 체포령을 피해 월남한 후, 서울에 영락교회의 전신인 '배다니 전도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했던 해방후 혼란기의 설교에도 잘 나타난다. 1947년의 『대한민족아, 깨어라』라는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해방과 건국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외쳤다. "과거 대한의 50년 역사를 정관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1945년에는 해방이 있을 줄을 아시

4) 김병희, 같은 책, 17-19쪽

5) 한경직 목사는 31운동 직후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 근교의 영성학교의 교사로 재직할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을 입수하여 읽었다 (한승홍,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3, 85쪽 참조)

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거든 어찌하여 우리 신자는 아직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족 전체는 아직도 미지근하여 기독교를 문 밖에 세워둡니까?”⁶⁾ 한 목사에게는 민족을 살리고 부흥시키는 길이 다름아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었다. 한 목사의 후일의 철저한 반공주의의 정치적 신념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 신앙의 전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경건 체험의 신학

한경직 목사의 신학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요인은 그가 어릴적부터 배우고 경험한 간리마을 자작교회의 청교도적 경건주의 신앙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 목사의 신학의 특징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론을 통해 형성된 측면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체득한 경건신앙과 생애의 위기마다 겪은 체험에서 나온 확신에 의해 확립된 측면이 더 강하다는데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건주의 신앙은 1904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1907년 평양의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부흥회에서 절정에 이른 대부흥을 통해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의 원형으로 확립되었다. 한국교회의 경건주의 신앙은 성령의 임재 체험과 함께 일어나는 철저한 죄의 고백과 통회의 눈물, 그에 따르는 중생의 기쁨과 확신으로 특징 지워졌다.⁷⁾

한 목사의 경건주의적 체험의 신학을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에는 적어도 세가지가 있다.

첫째, 소년 한경직이 기쁘게 다녔던 자작교회의 우용진 전도사를 통한 성경이야기와 신앙적 감화는 그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 주었다. 그는 우전도사의 가르침을 깊은 존경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후 오랫동안 사제관계를 유지했다.⁸⁾

둘째, 숭실대학 재학중 학업 뿐만 아니라 기독교학생회, 응변대회 참가, 순회전도대원 등의 학생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한목사는 숭실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그가 학생비서로 일하던 방위량(W. N. Blair) 선교사와 함께 책을 번역하기 위해 선교사 피서지인 황해도 구미포 해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고 단순한 자연과학도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결단하게 되었다.

6) 한경직,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기독교문사, 1987, 105쪽 (이하 ‘설교전집’으로 요약표기)

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85, 208-210쪽

8) 한승홍, 같은 책, 66-67쪽

“그런데 방위량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시오 내가 그분 비서로 있으면서 공부하엿더랬는데 황해도 구미포 소래라는 곳에 선교사 피서지가 있었시오 여름마다 피서갈 때 나도 같이 가서 번역을 한다든지 일을 거들어 주곤 했시오 3학년 때 한 번은 구미포 모래사장에 혼자 조용히 산보를 하는 데 - 하나님의 은혜지요 -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거나 하는 문제를 놓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때 기도하던 중 분명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시가 왔어요 사실 그때 중요한 것은 민족이니깐,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시오”⁹⁾

셋째, 한 목사는 1926년부터 29년까지 프린스턴신학교 졸업한 후 예일대에서 교회사전공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하려는 계획으로 준비하던 중 폐결핵 3기 진단을 받았다.¹⁰⁾ 그후 3년동안의 죽음을 눈앞에 둔 요양 생활은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야심을 정화하고 민족을 위해 부르심 받은 소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의 “그의 기도는 ‘한국에 가서 3년만 일하다가 죽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봉사의 기회를 간구하는 애절한 기도였다 이 기도는 한국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일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배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성껏 봉사하다가 죽겠다’는 자기헌신을 맹세하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에의 절대적 의존이었다”¹¹⁾ 이처럼 폐결핵의 경험은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중요한 신앙체험의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한목사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민족을 섬기기 위해 1932년 귀국했다. 한 목사는 그의 만년에 이 체험을 다시 한번 회고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학교 교장이 알선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앓지 못하고 누워서 치료만 했어요 그때 심정이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병이나서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또 그땐 폐병이 들면 다 죽었어요 자연요법 밖에 모르는 때니까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한국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고 독방에 쇠사슬로 된 방에 있었어요 생각하면 그 땐 참 슬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축복이 되었어요 .. 하나는 죄를 자복했어요 죄가 많거든 뭐 공부하는 학생이 큰 죄는 없지만 야심, 보통, 앰비션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날린다는지,

9) 김병희, 같은 책, 22-23쪽

10) 한승홍 교수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의 폐결핵의 진행상태는 요양기간을 고려할 때 본인의 2기라는 기억에도 불구하고 3기로 보아야 한다(한승홍, 같은 책, 98쪽, 각주 93 참조)

11) 한승홍, 같은 책, 98쪽

한국말로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또 허위, 그리고 세상을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그런 죄를 자백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학문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없어졌어요”¹²⁾

이러한 한 목사의 경건주의 신앙체험은 훗날 그의 목회방침과 신앙노선 중의 하나인 ‘청교도적인 생활’에 그대로 나타난다. 성결, 진실, 근면, 절제, 사랑의 다섯 가지 덕이 모든 기독교인이 추구할 생활과 행위의 원칙이며 그는 일생동안 이 원칙을 개인생활이나 목회에서 실천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

4. 장로교 복음주의 신학

한경직 목사는 어릴적부터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장로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장로교인이 운영하는 오산중학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된 숭실대학을 거쳐 도미하여 장로교 대학인 앰포리아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그야말로 ‘정통’ 장로교 목회자였다. 한 목사는 스스로의 신학적 입장을 ‘신신학’이 아닌 ‘보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송창근 목사나 김재준 목사의 신학적 입장과 거리를 취한다

“아, 그건 오해지요. 우리는 신앙은 보수적인데 교회론에 있어선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신신학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가지지요. 하나는 내가 에큐메니칼이고 또 하나는 내가 송창근 목사나 김재준 목사와 가깝거든 프린스턴에서 처음 만났지요. 그저 인간적으로 친했지요. 그러나 내 그랬지요. ‘나는 당신네 생각하고는 다르다’고”¹³⁾

다른 한편 한 목사는 그당시 평양신학교의 신학이나 박형용 목사의 신학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피한다. 그 이유는 그가 평양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그의 신학수업의 과정이 한국의 일반 장로교 목회자와 다른점이 었다. 사실 그가 숭실대학을 졸업할 무렵 마포삼열(Moffett) 선교사는 그를 먼저 평양신학교에 보내 철저한 보수신학을 공부시킬 것을 고려했지만 그의 신학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방위량

12) 한경직,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와 신학』, 통권 39호 (1992. 9), 197-198쪽.

13) 김병희, 같은 책, 34쪽

(Blair)선교사는 직접 미국에서 공부할 것을 권하고, 게다가 숭실에서 자연과학만을 전공한 한목사에게 먼저 인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¹⁴⁾ 따라서 한목사의 신학은 평양신학교의 한국 장로교 보수주의의 틀보다는 20년대 후반의 미국 북장로교 신학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북장로교의 신학적 중심인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는 강력한 구프린스턴 신학의 전통, 즉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찰스 핫지(Charles Hodge),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의 신학을 계승한 신약학자 메이첸(G. Machen)의 보수주의와 이에 도전하는 뉴욕 제1장로교회의 부목사였던 포스딕(H. E. Fosdick)의 입장을 옹호하는 현대주의 또는 자유주의 사이에 열띤 신학논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었다. 마침내 이러한 신학적 논쟁의 여파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양분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한 목사가 프린스턴을 졸업하던 1929년 메이첸을 중심으로 하는 8명의 교수들이 52명의 학생들과 함께 프린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Western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경직 목사는 이러한 대립의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외국 유학생의 입장에서 관망하면서 “그저 신학 자체와 성경만 배우겠다”¹⁵⁾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메이첸 뿐만 아니라 어드만(Ch. R. Erdmann), 뢰처(F. W. Loetscher), 스티븐슨(J. R. Stevenson), 스미드(J. R. Smith), 핫지(Hodge), 윌슨(Wilson), 앨리스(O. T. Allis), 밴틸(C. Van Til), 보스(G. Vos), 그린(W. Green) 등의 보수와 (온건한) 진보 양 진영의 교수들에게 모두 수학했다. 한 목사는 비록 신학교와 교단의 분열을 가져온 메이첸의 분리주의에 반대하지만 그의 신약강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보수신앙에 동조하기도 한다.

“메이첸 박사에게 신약을 배웠는데 아주 정밀하고 잘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가지고 한학기하는 분인데 내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그 분에게 배웠지요. 우리 신앙은 꼭 보수지요”¹⁶⁾

한 목사의 성경관은 그의 설교 『성경과 현대인』에서 요약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됨을 인정하는 ‘전체 영감론’을 강조하면서, “문자적 구수”(Verbal Dictation)를 주장

14) 김병희, 같은 책, 24쪽, 한승홍, 같은 책, 92쪽 참조

15) 이만열, “한경직 목사를 만남”, 『한국기독교와 역사』, 창간호, (1991 7) 139쪽

16) 김병직, 같은 책, 33쪽

하는 ‘기계적 영감론’을 부정하고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승인할 때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시라 이 소식을 전하는 기록에 관계 안했을 리 없습니다. 그는 성경기자들에게 성신으로 감동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은 문자적 구수(Verbal Dictation)로 되어졌다고 하여 성경저자의 인격과 지식과 연구를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견해는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은혜받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시에도 감동 중에 산 이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때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거의 2천 년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쓴 기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대의에는 조금도 모순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¹⁷⁾

한 목사는 이러한 성경관에 기초하여 복음주의를 그의 신학의 기본노선으로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목회노선을 제시한 설교 『올바른 신앙노선』에서 첫 번째로 복음주의 신앙을 들고 있다. 복음주의 신앙이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의미”¹⁸⁾한다. 그는 이러한 복음주의를 대립되는 세 가지의 신학적 입장과 대결시킨다. 첫째, 복음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나 성인 숭배와는 달리 “성경말씀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음을 확신”¹⁹⁾한다. 둘째, 복음주의는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여 사실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진리 위에 두는”²⁰⁾ 자유주의 신학과 대립된다. 셋째, 복음주의는 “구원이라는 뜻을 사회혁명 또는 사회구조의 개혁으로 설명하는”²¹⁾ 이른바 ‘사회복음주의’와 대립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개인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어 그 영혼을 죄에서 먼저 구원함이 주님이 오신 목적”²²⁾이기 때문이다.

17) 한경직, 『설교전집』 1, 117쪽.

18) 한경직 『설교전집』 12, 416쪽.

19) 한경직, 『설교전집』 12, 417쪽.

20) 같은 곳

21) 같은 곳

22) 같은 곳

5. 교회의 신학

1) 복음전도와 교회부흥의 신학

한경직 목사의 신학의 가장 적극적인 면은 그의 교회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³⁾ 즉 그의 신학은 전도와 교육을 통한 교회의 부흥과 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신의주 제2교회에서의 목회와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영락교회에서의 목회는 이러한 교회론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장이었다. 그는 1933년 31세의 전도사로서 신의주 제2교회의 청빙에 응한 후 그의 목회노선대로 복음에 근거한 희망의 설교 메시지와 다양한 교회교육을 통하여 전체 교인이 3백명 정도에 “예배당도 제대로 없고 개천가에 일본사람이 살던 집을 사서 수리해 쓰는”²⁴⁾ 교회를 10년만에 2000명 가까운 대교회로 부흥시켰다.²⁵⁾ 또한 한 목사는 그의 월남 후 서울에 세워진 ‘베다니 전도교회’(영락교회의 전신)에서 혼란한 정국과 월남 피난 후의 불안정한 형편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교회관, 생활관, 시국관이 담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동시에 그는 주일학교, 농아부, 찬양대, 부인전도회, 인천제1교회 개척 등의 적극적인 교회조직과 전도·개척과 함께 피난민들의 생활터전 마련과 구제사업에 매진한 결과 교회는 창립 1년만에 전체교인 1400 여명에 이르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²⁶⁾

그의 교회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⁷⁾

-
- 23) 한승홍 교수는 한경직 목사의 신학을 ‘교회중심주의 신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교회중심주의 신학은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참된 신학의 본질은 규명되고, 또 그러한 한에서만 기독교의 사명과 역할은 진정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신학의 좌나우를 모두 초월한 순수 기독교적인, 이런 의미에서 참 성서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승홍, 같은 책, 198쪽 이하)
- 24) 이만열, “한경직 목사를 만남”, 『한국기독교와 역사』, 창간호 (1991 7), 148쪽 (한승홍, 같은 책, 104쪽에서 재인용)
- 25) “한경직 목사의 목회방향은 교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메시지에 집중되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 하에서 실의와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향해 위로와 용기를 담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같은 힘이 넘치는 메시지는 교인들, 특히 청년층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주었다 그는 또한 청년층을 위한 여러 모양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앙생활의 지침은 물론 가치관의 확립, 나라 사랑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 성장해 나갔다”(영락교회편, 영락교회 50년사, 57쪽)
- 26) 영락교회편, 같은 책, 78쪽 참조.
- 27) 한경직, 『설교전집』 1, 44-47쪽

- 첫째, 지상의 교회('에클레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의 기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 둘째, 교회는 "성별된 자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시다.
- 셋째, 교회는 가건적인 '보이는 부분'과 불가견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이는 교회는 교파로 나누인 모든 지상의 지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로서 인종과 국적과 교파의 차이를 넘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성도가 속하는 공동체이다.
- 넷째, 보이지 않는 '실체교회'는 보이는 '현실교회'를 통하여 진리전파와 천국건설을 수행한다
- 다섯째, 교회가 있는 곳에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된 개인들에 의해 사회 현실의 각 영역에 평화와 부흥이 일어난다
- 여섯째, 교회는 건전한 국가의 기초가 된다.

한 목사는 현실 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전도(선교)이다. 전도는 교회의 성령충만의 결과이며 교회의 부흥은 전도의 열매로서 맺어진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흥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전도사업을 하여야"²⁸⁾ 한다. 이러한 교회의 전도사명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은 한 목사로 하여금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구호아래 학원선교와 군선교, 산업선교와 메스컴선교를 앞장서서 추진하게 했다. 그가 대표한 전도운동들인 전국복음화 운동, 빌리그레함 전도집회, 군복음화 후원회 등도 모두 이러한 전도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선교 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선교와 아시아선교 및 세계선교에도 이어졌다.

2) 에큐메니칼 신학

이미 위에서의 한 목사의 '장로교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언급가운데 드러난 대로 한목사는 시종일관 교회의 고립이나 분열에 반대하고 '에큐메니칼' 신학의 입장에 섰다. 그가 프린스턴의 학내논쟁의 외중에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 입장에서나 기본적으로는 메이첸의 '동정녀 탄생'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중립을 지킨 이유가 그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기인한다고 볼

28) 한경직, 「설교전집」 12, 376쪽

수 있다. 그는 보수주의 입장에 서면서도 다른 (자유주의) 입장과의 대화해야만 하며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다 좋은데 특별히 학교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일어나던 때라, 보수진영에서는 메이천박사라고 신학교 부교수였는데 이 분이 아주 보수주의 투사라 보수신앙을 강력히 주장했시오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보수주의자라도 모두 온건주의자였시오. 이 사람이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때 자유주의가 일어나던 때라 어더런 목사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도 안수해 주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때 메이천 박사가 『동정녀 탄생은 왜 믿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주 권위가 있었지요 이래서 조용하던 신학교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 교회는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보수주의는 가지면서도 교회는 갈리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참 유감이었지요 후에 좋은 경험이 되었지요”²⁹⁾

그러나 한목사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문제와 신학적 입장의 차이, 마침내는 세계 교회 협의회(WCC)에 참여하는 문제(1959년 제44차 총회)로 크게 세 번 분열하게 되었다. 한 목사는 이러한 교회분열의 아픔속에서도 계속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³⁰⁾ 동시에 보수신앙을 견지하고자 했고, 갈라진 합동측과의 재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³¹⁾

6. 사회신학

1) 사회봉사의 신학

한 목사의 교회의 신학은 항상 ‘사회봉사’에 의해 동반되었다. 한 목사에 의하면 교회가 가진 “예수님의 흔적(stigma)”은 약자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봉사에서 드러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도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남을 돕고 봉사하는 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³²⁾ 그가 처음으로 사회사업을

29) 김병희, 같은 책, 29-30쪽

30) 영락교회, 같은 책, 236쪽

31) 영락교회, 『영락교회 35년사』, 174-175쪽 참조

32) 한경직, 『설교전집』 1, 217-218쪽 참조

시작한 것은 신의주에서의 목회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가 처음에 신체가 부자유한 고아 한명으로 시작한 ‘보린원’은 보육원과 양로원의 기능을 함께 갖는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는 일제에 의해 교회에서 강제로 사임당한 후, 이곳에서 4년동안 고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 분노통을 매는 동고동락의 생활을 하기도 했다.³³⁾ 그의 사회봉사는 해방후 서울의 영락교회의 목회와 6·25의 전쟁기간동안 더욱 강화되고 다양하게 되었다. 그는 창립 초기부터 영락교회에 ‘농아인 전도부’를 설립하고 그들을 위한 수화예배를 시작했고 이어서 ‘보린원’을 재건하고 부산 피난 시절에는 전쟁 미망인을 위한 ‘다비다 모자원’을 건립했다. 이러한 교회내의 사회봉사사업은 경로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상담소, 노인복지회관 및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애니아의 집’으로 확장되었다.³⁴⁾

한국동란 중 그의 활약 역시 두드러졌다. 그는 6·25 직전 서울에서의 전도집회 때 알게 된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의 도움으로 부산에 피난 온 목사 400명을 모아 목회자 수양회를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확신하고 쓰러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연합 전시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구와 부산과 제주도의 피난성도들을 구호하는 일에 전력했다. 그는 피어스 목사와 함께 ‘선명회’(World Vision)를 창설하여 전후에도 계속 피난민과 전쟁고아들을 도왔다.³⁵⁾

이처럼 한 목사에게 소외되고 억눌리고 병든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봉사의 책임은 복음전도의 책임과 함께 복음주의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사명이었다.

2) 정치신학

환경적 목사의 정치신학은 그의 신학 중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의 일관된 정치적 입장은 그의 신학이 보수 경건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성품적으로 ‘정치적’이기 보다는 조용한 학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랬기에 그는 미국 유학 시절 공부를 계속하여 교회사 학자가 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정치적 입장을 근본적으로 결정한 신념은 남강과 고당으로부터 직접 배운 기독교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철저한 ‘반일’과 ‘반공’주의는 그가 몸소 겪은 역사체험을 통해 확립된 민족주의적 신앙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에게 있어 민족을 살리

33) 영락교회, 같은 책, 58쪽 참조; 한중식, 같은 책, 26쪽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일화는 김병희, 같은 책, 40-46쪽 참조.

34) 영락교회, 같은 책, 408-409쪽 참조.

35) 한중식, 같은 책, 27쪽 참조; 한승홍, 같은 책, 151-161쪽 참조.

고 부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고,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동시에 민족을 멸시하고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주장은 다름아닌 천일주의와 공산주의였다. 그는 해방 직후 『대한민족아 깨어라』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오늘 기독교에 대하여 편견과 반감을 가진 무리는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적 사교 중심의 일본문화의 감화를 받는 계급인데 이들은 기독교가 진리인줄 알면서 일본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 또 하나는 유물주의자들이니 이들은 육신생활에 눈이 어두워서 모든 정신 방면을 잊어버리는,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입니다 . 우리 신자는 이 두가지 대적 곧 일본 신도문화의 잔재와 유물주의 사상과 생명을 절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³⁶⁾

한목사의 반일주의는 그가 1942년 신의주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다른 몇몇의 목회자와 장로 15-6인과 체포된 후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결국 이미 신사참배한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사참배에 응한지 몇주만에 일본경찰에 의해 결국 배일주의자로 낙인찍혀 신의주 제2교회 강단에서 축출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³⁷⁾ 이 때는 이미 조선 장로교 총회가 제27차 총회(1938. 9. 9-10)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³⁸⁾

해방 직후 그는 일본 평북지사로부터 과도기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독립지사 이우필과 윤하영 목사와 함께 신의주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의주 자치회'를 조직하여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그러나 소련군이 진주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을 결성하지만 기독교지도자들과 동조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체포령 때문에 결국 1945년 10월 월남한다.³⁹⁾ 북한에서의 공산당과의 투쟁 경험은 그후 6·25의 경험과 함께 그를 결단적이고 실천적인 반공주의자가 되게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공산주의 이론의 비현실성과 기독교 신앙의 영적 차원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현실적으로 비판한다.

36) 한경직, 『설교전집』 1, 107쪽

37) 이만열, “한경직 목사를 만남”, 151-152쪽 참조 (한승홍, 같은 책, 111-112쪽에서 재인용)

38) 민경배, 같은 책, 347-348쪽 참조

39) 한승홍, 123쪽 참조

“공산주의라는 말을 타고 사회정의와 무산자 해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 테러, 방축, 약탈 등을 일삼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자로 이는 소련을 통하여 들어옵니다”⁴⁰⁾

더 나아가서 한 목사는 기독교의 진리만이 이러한 자가당착의 공산주의에 대한 올바른 대안임을 역설한다:

“경제적으로도 역시 기독교가 인간에게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농촌운동을 통한 다듬기 혹은 노동법안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토지법안을 제정해서 모든 농민들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여러 가지 조합제도와 보험제도를 두어서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게 하는 이른바 복지 국가제도를 가진 선진 기독교 국가에서 실행해서 기독교 진리가 오래 확보되고 기독교 정신에 의지해서 사회제도가 수립된 나라일수록 기본적으로 그 경제생활이 비교적 균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⁴¹⁾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반공주의가 자유당 정부, 4·19, 5·16, 공화당 정부와 유신정권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입장을 방향지위준 기본원칙이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니 일제시대에는 일본정부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운동이 나라를 위하는 참 애국운동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있어 대통령이랑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이어요. 옳든지, 어떻든지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잘 받들어서 정부나 정치가 잘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문화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는 동시에 교회가 발전합니다. . 공산당이 없으면 나도 그러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기회만 노리니만큼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의 안정을 깨치고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는 수단은 절대로 쓰지 아니해야 된다고 봐요”⁴²⁾

이러한 한 목사의 정치적 입장은 5·16 군사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보게 했고 제3공화국에 정치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협조는 절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교회의 사명은 일차적으로 복음전도이며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그의 신념에서 나왔다

40) 한경직, “청교도의 신앙”, 『설교전집』 1, 75쪽.

41) 한경직, 『설교전집』 1, 362쪽.

42) 김병희, 같은 책, 87-88쪽

고 할 수 있다. 그는 10월 유신이 단행되기 일년 전인 1971년 5월 1일 박정희가 참석한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긴급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사상은 본래 기독교적 신앙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적 신앙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이 수이 말라 버린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박대통령 각하,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생명같이 사랑하는 조국을 영원불변의 정신적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하여 아직까지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를 영접하십시오”⁴³⁾

한 목사의 우려대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박정희는 다음 해 10월 유신을 통하여 영구집권과 일당독재의 길을 가게 된다. 과연 한 목사의 원칙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적합했는가의 물음에 대해, 『영락교회 50년사』는 한 목사의 신념의 정당성과 함께 그 한계를 조심스럽게 인정한다.

“역시 한 목사의 입장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러했듯이 하나님 입장, 곧 ‘복음정신’에 따라 판단하려는 신앙적 입장을 견지하려 하였다. ... 따라서 이같은 태도는 보기에 따라 애매하고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비치기도 하였다 .. 이 점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일부 진보적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해도 그는 이 원칙을 지켜 나갔으니, 돌이켜 보면 바로 이 점이 한경직 목사와 영락 교회의 장점이자 또한 한계였다 할 것이다”⁴⁴⁾

7. 글을 맺으면서: 겸손과 사랑의 삶과 신학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학을 대변하는 말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겸손의 표현과 “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에 잘 나타난다. 대교회

43) 한경직, 『설교전집』 12, 277-281쪽

44) 영락교회, 같은 책, 186쪽.

목회자이며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신학은 ‘겸손’과 ‘사랑’으로 특징지어진다. 그의 겸손의 극치는 1992년 6월 18일 템플턴상 수상 기념예배에서의 그의 신사참배에 대한 고백에서 나타났다.⁴⁵⁾ 아무도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그의 고백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허물을 한국교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담담히 밝힌 것이다. 그는 일제하의 민족의 수난과 분단의 비극과 국가의 재건과 건설의 과정을 함께 걸으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민족과 교회와 한사람, 한사람의 성도를 사랑하면서 신학과 정치에서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며 욕심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었다. 그는 비록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단호하고 날카롭게 외치는 ‘아모스’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 준 목회자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신학을 추구한 ‘중용의 신학자’였다. 그의 유일한 욕심은 한민족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45) 한승홍, 같은 책, 219쪽 참조

참 고 문 헌

-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 김광수,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한국교회사연구원, 1978.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7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85.
- 이만열, “한경직 목사를 만남”, 『한국기독교와 역사』, 창간호, (1991. 7)
- 영락교회 35년사 편집위원회, 『영락교회 35년사』, 1983.
- 영락교회 50년사 편집위원회, 『영락교회 50년사』, 1998.
- 한중식, 『사랑과 섬김의 성자 한경직』, 숭실대 출판부, 1998.
- 한승홍,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3.
- 한경직,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기독교문사, 1987.
- _____,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2, 기독교문사, 1987.
- _____,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와 신학』, 통권 39호, (1992. 9)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Theology of Rev. Han Kyung-Chik

Choi, Taeyon

Rev. Han Kyung-Chik, an alumnus of Soongsil University at Pyongyang and the refounder of Soongsil at Seoul -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pasto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is pastoral activity is well-known, but his theology is not well studied. This essay will seek to clarify his theological thoughts. It does not examine his theology from the viewpoint of systematic theology, but tries to survey some important aspects of his theological thoughts:

First, the ground of his thought is patriotism. His nationalism has grown from the historical situation of Korea during his young ages when Korea was annexed and oppressed by the Japanese Empire. Especially, he was strongly influenced from his Christian teachers like Lee Seung-Hun, the founder of Osan Christian High School at Jeongju, and Cho Man-Shik, the principal of the same school and the most famous Christian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after the 2nd World War.

Second, his theological thinking definitely comes from pietistic experiences. He earned the biblical belief and personal confidence in Jesus Christ from the church and experienced a personal calling from God when he was a student of Soongsil university. His pietism culminated in the experience of tuberculosis during his studying time in the USA.

Third, his theology could be characterized as presbyterian and evangelical theology. Unlike many other Korean pastors of his times, he obtained his theological education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 center of presbyterian theology in the USA. He characterized his theology as evangelism stressing the justification of sinners only through the belief in Jesus Christ.

Fourth, his theology aimed at a theology of church thoroughly. The church needs

the theology which concentrates on continuous evangelism and the renewal of the church. Ecumenism also belongs to his church-centered theology. He had experienced the division of the church through the separation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e unity of the church always has priority over differences in the theological position.

Fifth, he was interested in social diakonia in his first pastoral activities in North Korea. In Seoul, he constructed various diakonia institutions. He founded the World Vision with Rev. Bob Pierce during the Korean War. His political theology had been established by *anti-imperialism and anti-communism*. Both ideologies mean modern idolatry for the Korean church. He argued his conservative position based on this anti-communism in the era of dictatorship .

Rev. Han Kyung-Chik could be characterized through his love and humility above all. His theology has sprung up from his personality.